

<컴패션 뉴스레터 1969년 1-2월호>

**머나먼 나라에서 좋은 소식이 왔습니다.**

(사진)

- 헨리 하비(Henry Harvey) 대표와 미리암 스완슨(Miriam Swanson) 여사가 컴패션 후원자의 보살핌을 받고 있으며 두 자녀를 둔 팔 없는 인도네시아 과부를 방문했습니다. 도움이 없었다면, 이 가족은 극심한 빈곤에 시달렸을 것입니다.
- 윌리 에릭슨(Wally Erickson) 한국 현지 대표가 컴패션 보육원 중 한 곳에서 만난 사랑스러운 소년에게 자신의 사랑을 전하며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컴패션은 수천 명의 어린이들에게 축복을 가져다주었습니다.
- 미리암 스완슨 여사는 항상 가능한 한 많은 어린이들과 사랑을 “나누려고” 노력합니다. 그녀의 한국 방문은 보육원 원장님들을 격려하고, 어린이들에게 미국에 있는 “엄마, 아빠”가 자신을 진심으로 아끼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한국과 인도, 인도네시아에서 좋은 소식이 왔습니다.**

● **한국에서의 강화된 사역**

(사진)

- **컴패션 이전:**

최근 이 어린 소녀는 한국 당국에 의해 발견되어 보육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춥고, 떨고, 젖은 채로 겁에 질려 있습니다.

- **컴패션 이후:**

... 사랑이 위로와 희망을 불어넣기 시작했습니다. 샬리 스완슨(Sally Swanson) 간호사는 어린이를 목욕시키고 먹이며, 진정한 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 헨리 하비(Henry Harvey) 컴패션 대표는 보육원 평가를 위한 최근 출장 중에 많은 교회 모임과 원장님들의 모임에서 연설했습니다.

네, 컴패션이 일하는 모든 나라에서 좋은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영적인 축복에 관한 보고가



네, 세 번째 비전트립에 참가하시는 분들께 "탑승 환영"의 인사를 건넵니다.

몇 달간의 계획과 신중한 일정 조정을 거쳐 비전트립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참가하는 분들께는 일생일대의 경험이 될 수 있는 멋진 3주가 제공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후원어린이를 직접 만나보는 한국을 방문할 뿐만 아니라 이국적인 홍콩과 고대 일본도 여행하고, 따사로운 하와이에서 며칠을 보내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또한 여정 내내 훌륭한 그리스도인들의 교제와 전문적인 안내를 함께 경험하며, 잊지 못할 시간을 보내실 것입니다.

비전트립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거나 참가를 예약하시려면, 아래 양식을 작성하여 바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세부 사항과 정보를 신속히 보내드리겠습니다. . . 단, 좌석이 남아 있을 때, 서둘러 우편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행이 시작됩니다!*

(사진)

- 홍콩, 일본, 하와이에 도착하여 노스웨스트 오리엔트 여객기(Northwest Orient Airliner)에서 내리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도 이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 얼마나 멋진 경험인가요! 여러분의 어린이가 살고 있는 보육원을 방문하고, 원장님들을 만나 보십시오. 그 기쁨이 어떤 건지 알게 되실 것입니다.
- 로버트 포사이스(Robert Forsyth) 비전트립 팀장이 컴패션 후원자들에게 최고의 일정을 제공하기 위해 한국 측 여행 안내자들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습니다.

로버트 포사이스 비전트립 팀장  
3차 컴패션 비전트립  
Box 880, Blenheim, Ontario, Canada

네, 저는 3차 비전트립 참가를 희망합니다.

예약을 보장하기 위해 계약금으로 100달러(미화)를 동봉합니다. 출발 예정일 최소 60일 전에 취소할 경우, 계약금이 환불된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또한, 컴패션에서 완전한 정보와 서류 및 지침을 보내주실 것을 알고 있습니다.

3차 비전트립 관련 추가 정보를 신속히 받고 싶습니다.

이름: \_\_\_\_\_

거리: \_\_\_\_\_

도시 및 주: \_\_\_\_\_ 우편 번호: \_\_\_\_\_

(비전트립 일정: 원본 이미지 참조)

### 두 배로 감사해요.

(사진)

- 컴패션 겨울 구호 프로그램(WARM, Winter Aid Relief Money)을 위한 여러분의 자비로운 선물 덕분에 이 소중한 어린이들이 한국의 추운 겨울을 따뜻한 옷을 입고 맞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랑하는 소년, 소녀들을 향한 여러분의 사랑에 하나님의 축복을 기도합니다.
- 이 소녀의 미소를 보세요! 이번 크리스마스에 수천 명의 어린이들이 후원자들로부터 선물을 받아 행복해졌습니다.

네, 모든 컴패션 후원자와 친구들에게 두 배의 감사를 전합니다. 우리는 어린이들이 직접 여러분을 뵈고 감사 인사를 전할 수 있기를 바라지만, 안타깝게도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린이들을 대신해 여러분이 이들의 삶에 큰 기쁨과 희망을 불어넣었다는 것을 확신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컴패션 겨울 구호 프로그램(WARM, Winter Aid Relief Money) 기금은 모두 제때 한국으로 보내져 원장님들이 필요한 컴패션 겨울 구호 프로그램(WARM)의 의류를 구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직 선물에 대한 감사 편지를 받지 못하셨다면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곧 도착할 것입니다.

물론, 크리스마스에 여러분의 선물이 어린이들에게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기쁨과 축복을 가져다주었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컴패션 보육원의 가난한 어린이들에게 이번 크리스마스를 행복하게 만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한국 어린이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컴패션 어린이 합창단**

**미국의 컴패션 친구들은 다시 한번 한국에서 온 어린이들을 직접 보고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역에서 열리는 이 중요한 행사를 놓치지 마십시오.**

한국 어린이들의 순회공연이 다시 시작됩니다! 미리암 스완슨 여사가 2월부터 5월까지 한국의 컴패션 보육원에서 온 사랑스러운 소년, 소녀 그룹과 함께 다시 한번 미국을 여행합니다.

어린이들은 노래를 부르고, 성경을 암송하고, 한국의 전통 이야기를 선보일 것입니다. 스완슨 여사는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의 컴패션 사역에 대하여 마음이 따뜻해지는 보고를 들려드릴 것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이 어린이들을 직접 보고 듣는 이들의 마음과 삶에 풍성한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앞으로 정확한 공연 장소와 시간에 대해 계속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이 사랑스러운 어린이들을 만나기 위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계신 도시에서 이 어린이들을 만나고 싶다면, 아직 늦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어린이들을 만나는 것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시카고 사무소로 연락해 주십시오.

무엇보다 이 사랑스러운 어린이들과 스완슨 여사가 과거처럼 많은 이들에게 축복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사진)

미리암 스완슨(Miriam Swanson) 여사는 1969년 초, 한국의 이 사랑스러운 어린이들과 함께 미국 순회공연에 동행할 것입니다.

(순회 일정: 원본 이미지 참조)

### **컴패션 우체통**

**기쁨을 이루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친애하는 친구들께,

사랑하는 아들 경환(Kyung Hwan)의 감사 편지와 원장님이 준비해 주신 생일파티 사진 두 장을 받았습니다. 행복한 아들을 보고 느낀 기쁨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특히 우리가 보낸 편지를 들고 있는 아들의 모습을 보니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거나 소유한 그 무엇이 이렇게

큰 행복을 줄 수 있을까요!

- E. R. F. 후원자 부부

###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친애하는 친구들께,

제 감정을 말로는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린 최선미(Choi Sun Mi)의 사진을 보고 저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기쁨의 눈물을 흘렸을 뿐만 아니라 머리를 숙여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제 인생이 갑자기 충만해졌습니다. 여러분의 사역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확실히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긍휼하심으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 B. J. S. 후원자

### **어린이 부흥회**

친애하는 친구들께,

최근 저희 보육원에서 어린이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저희는 많은 열매를 맺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26명의 어린이들이 간증했고, 50명이 성경 암송에 참여했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여러분 모두를 기억하며 기도할 것입니다.

- 박성준(Pak Sung Joon) 원장

### **도움을 주고 싶은 대학생**

친애하는 친구들께,

저는 인도, 한국, 인도네시아의 고아 어린이들을 위한 후원자를 늘리기 위해 뭔가를 하고 싶은 대학생입니다. 작년에 저는 한국 고아를 후원했고, 영적인 면에서, 그리고 컴패션이라는 조직에 대해서도 매우 만족했습니다. . . 저는 부모님과 어른들에게 고아 후원의 필요성과 그 방법이 얼마나 간단한지에 대해 알리고 싶습니다.

- M. L. 후원자

### **후원자에게 감사하는 전도사**

사랑하는 후원자님께,

후원자님의 많은 기도와 후원에 진심으로 깊이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섬기는 것은 영광입니다. 진실한 기독교 정신으로 이 일을 지원해 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이상순(Lee Sang Soon) 전도사